

갈홍 신선사상의 도교 철학적 맥락 탐색 -『포박자내편』을 중심으로-

김 채 린*

< 目 次 >

- | | |
|------------------------|------------------|
| I. 서론 | IV. 玄·道の 매개로서의 一 |
| II. 본체론으로서의 玄 | V. 갈홍 신선사상의 특징 |
| III. 현실 사회의 총 근원으로서의 道 | VI. 결론 |

<국문 초록>

갈홍은 위진시기에 활동한 사상가로 인간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갈홍은 선진시기부터 내려오던 玄·道·一을 계승하여 신선사상에 부합한 現·도·일로 변용·발전시켰으며, 이러한 現·도·일을 신선사상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즉 갈홍은 형이상학의 現·도·일로 신선사상의 본체론을 펼쳤고, 나아가 우주의 근원인 現·도·일을 수행과 배움으로 터득·체득하여 영원불멸의 신선이 될 수 있다는 仙道の 실천철학을 체계화하였다.

갈홍의 神仙可學論은 신분·귀천·성별에 상관없이 신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움으로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선가학론은 선진도가의 無爲自然의 사상을 계승하여 자연적으로 '신선의 별을 타고 태어난 사람'만이 신선이 될 수 있다는宿命론과 짝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 하면 '신선의 별을 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한 구분과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사람이 '내가 신선의 별을 타고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 공주대학교 박사과정생 / k72clin@naver.com

내포하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선가학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다. 갈홍의 도교철학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는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와 불멸을 추구하는 신선사상의 이론적 체계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여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설파한 데 있다.

【주제어】 葛洪, 神仙思想, 玄, 道, 一

I. 서론

인간은 고대부터 건강과 장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오늘날 문명과 의료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현 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며, 그로 인한 우울증·자존감상실·자살·살인 그리고 의료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낙태·안락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명존엄성과 자아정체성을 상실한 오늘날의 사회에 자유와 불멸을 추구한 갈홍의 신선사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다시 말해 『포박자』의 저자 갈홍은 혼란의 위진시대에 활동한 사상가¹⁾로 참된 자아를 찾는 것에서부터 생명의 소중함과 그 소중함을 영원히 지키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1) 갈홍이 활동한 시기는 분열과 전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진남북조시대였다. 팔왕의 난(291), 영가의 난(311), 왕돈의 반란(322) 등 여러 차례의 전란과 기근 속에서 정치는 부패하였고 선비들은 은일하였으며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으로 피폐해져 갔었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죽림칠현, 현학 등이 출현하였고 기존의 유학질서가 해체되었으며, 인도에서 전파된 불교와 禳邪卻禍·長生不死를 추구하는 도교 등 구체론적 성향을 지닌 종교가 성행하였다. 갈홍은 불안과 혼란의 시대적 상황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였다.

갈홍은 도가 또는 도교에 속하는 학자로서 인간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본 논문은 그러한 갈홍의 사상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갈홍의 저서인 『포박자』는 「내편」과 「외편」으로 나누어지며 「외편」은 유가를 「내편」은 도가를 다루고 있기에, 『포박자』 「내편」을 중심으로 그의 도교철학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포박자』 「내편」은 선진시기부터 내려오던 도가 사상을 집대성하여 玄·道·一의 본체론적 사유에서부터 神仙存在論, 神仙可學論, 金丹法, 養生論을 체계적으로 이론화시킨 것이다. 갈홍은 말한다.

『포박자내편』은 신선과 방약, 귀괴와 변화, 양생과 연명, 사악함을 물리치고 재앙을 피하는 일을 말한 것으로 도가에 속한다.²⁾

여기서 갈홍이 말하는 도가는 실은 도교와 같은 말이다. 즉 『포박자』에서 말하는 도가란 도교를 포함하고 있다.³⁾ 도가라는 명칭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노장이라는 명칭은 『회남자』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한대 말기까지 주로 황로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갈홍은 『포박자』에서 황로와 도가라는 명칭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도교의 실천과 수행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자신이 계승한 것만이 정통적 도가임을 강조하였고, 사마담이 육가의 요지와 장단점을 평가한 『사기』 「논육가요지」를 계승하여 도가를 양생과 경세의 가르침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도가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여 본래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참된 근원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⁴⁾고 하였다.

2) 葛洪 撰, 楊明照 校箋, 『抱朴子外篇校箋』, 北京: 中華書局, 1991, p.698. 「自敘」, “其內篇言神仙·方藥·鬼怪·變化·養生·延年·禳邪·卻禍之事, 屬道家.”

3) 도가와 도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도가는 철학이고 도교는 종교이기에 둘의 관계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는 이분법적 관점과 도가·황로·노장·선도·신선도·방선도 등의 여러 명칭으로 존재하다가 범주화 과정에서 도교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는 관점, 후한 말에 출현한 천사도를 도교의 기점으로 그 전에 존재한 사상들은 도교의 형성에 기여한 前史물로 취급하는 관점 등이 있다. (이용주, 『생명과 불사』, (주)이학사, 2009, pp.9-35. 참조)

4) 葛洪 『抱朴子內篇』, 「明本」, “唯道家之教, 使人精神專一, 動合無形, 包儒墨之善, 總名法之要,

갈홍은 옛 문헌과 傳文의 기록에 근거하여 신선이 존재함을 논증하였고, 더 나아가 배움에 의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神仙可學論을 주장하였다. 갈홍의 신선가학론은 '신선의 별을 타고 태어난 사람'만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숙명론과 결부된다. 그러나 '신선의 별을 타고난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하고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역으로 모든 사람이 '내가 신선의 별을 타고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신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워서 이를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갈홍의 신선사상은 실천철학으로 혼란의 정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이자 구제론의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포박자』의 내편은 사상은 물론 종교, 과학까지 아우르는 도교철학체계로 자리매김하였다.

생명의 존엄성과 자아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갈홍의 신선사상은 생명의 경외심이 사라진 각박한 오늘날 사회에서도 그 필요성과 가치가 충분하다. 하지만 오늘날 신선에 대한 전반적인 관념은 장생불사를 꿈꾸는 인간의 허황된 욕심⁵⁾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선사상에 대한 연구 활동도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어서 몇 편의 연구 성과에 불과하다. 이를 살펴보면, 신진식은 "갈홍의 신선도교의 이론과 그 주장은 모순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모순성은 근본적으로 그의 신선도교 이론의 엄밀성을 떨어뜨린다. 운명론적 도교신앙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과학적 탐구는 갈홍 신선도교 이론의 두 영역으로, 이 두 방면의 상호 대립 충돌은 갈홍 이론 체계에서 모순을 야기하는 근원이다"⁶⁾라고 하였으며, 정우진은 "선도와 인연을 맺는 부분까지는 운명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선도의 수행이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임을 밝히는 갈홍은 운명론자이면서도 운명론자가 아니다"⁷⁾

與時遷移，應物變化，指約而易明，事少而功多，務在全大宗之樞，守真正之源者也。”

5) "신선도교는 망명되어 장생불사에 도달하여 황제나 귀족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를 영원도록 영위하려는 것이었다." (王明, 『道家與傳統文化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260.)

6) 신진식, 「포박자내편의 양생사상 연구」, 『한국철학논집』 제43집, 2014, pp.241-242.

7) 정우진, 「포박자 갈홍의 양생술 연구」, 『동양철학』 제40집, 2013, p.350.

고 하였다. 특히 이용주는 신선가학론과 숙명론의 관계를 이중성 내지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갈홍의 신선가학론은 숙명론과 결합하면서 실제적으로 可學可知의 여지를 상당부분 축소시키게 되었고, 그가 비판하는 기품설의 수준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⁸⁾고 하였다. 그리고 이진용은 그의 「갈홍 포박자내편의 玄, 道, 一에 대한 이해」라는 논문에서 현·도·일을 갈홍의 자연관 체계라고 규정하고 이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진용에 따르면, 현은 천지만물의 근원이자 본체이며, 도는 자연의 근본이자 동시에 현실 인류 사회의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일은 신선도교 이론 체계의 종교적 근거라고 한다. 물론 논자도 그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논자는 현·도·일의 이해를 통해 갈홍의 자연관 체계와 아울러 현·도·일의 이해가 그의 신선사상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갈홍의 신선사상 중 가장 상징적인 신선가학론이 지닌 숙명론을 이중성 내지 한계가 아닌, 모든 사람이 신선을 배움으로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신선존재론과 신선가학론에 대해 누구보다 굳은 신념과 확신을 갖고 주장하였던 갈홍의 의도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갈홍의 도교사상체계 안에서 현·도·일은 영원불멸의 신선을 지향하는 이론적 근거이며, 신선가학론이 지닌 숙명론은 이중성 내지 한계가 아닌 또 하나의 가능성임을 밝히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II. 본체론으로서의 玄

玄의 연원을 살펴보면 노자의 현은 단순히 道에 대한 다른 명칭, 즉 도를 표현하는 수식어로 사용되었고⁹⁾, 양한시기의 양옹의 현은 우주만물의

8) 이용주, 「신선가학: 갈홍 신선론의 논리와 한계」, 『종교와 문화』 제6권, 2000, p.204.

9) 『道德經』第1章,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故常無欲以觀其妙, 常有欲以觀其徼,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생성원리라는 철학적 개념을 부여하고 있다.¹⁰⁾ '자연의 시조이자 만물의 궁극적 원인'이 되는 갈홍의 현은 노자의 도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현은 우주가 시작되기 전의 아득하고 캄캄한 카오스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원초적인 것으로 만물을 생성·발전시키는 근원이 된다.

현은 자연의 始祖이자 만물이 생성될 수 있게 하는 大宗이다. 그 깊이는 아득하여 어둡기에 微라고 불린다. 그 멀기는 아주 오래되고 아득하기에 妙라고 불린다. 그 높이는 구천을 덮으며 그 넓이는 팔방을 한아름에 안은 듯하다. 해나 달보다도 더 빛나며 번개보다 더 빠르다. 때로는 홀연히 빛나 빛처럼 지나가고 불쑥 솟았다가 별처럼 흘러간다. 때로 넓은 연못처럼 맑고 때로는 뜬구름처럼 떠다닌다.¹¹⁾

갈홍의 형이상학적 사유는 현으로부터 시작된다. 갈홍은 현을 우주 만물을 創出시키는 근원으로 微妙하다고 하였다. 미세하고 오묘한 현은 그 무엇보다 우월하며 모든 곳에 遍在하고 있다. 이러한 갈홍의 현 개념에 대해 왕명은 "『포박자내편』에서 이른바 현은 양한 시기 양웅의 太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위진현학에서의 현이 아니다."¹²⁾라고 하였으며, 반면에 허항생은 "갈홍의 철학사상은 노자철학과 위진현학 사상으로부터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¹³⁾라고 하였다. 경희대는 "갈홍은 양웅의 태현사상을 받아들여 『포박자내편』을 시작하였고, 다시 현의 범주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우주의 본질임을 인정하여 세계 안의 모든 것이 현에서 산출되었다고 생각하였다."¹⁴⁾ 이진용은 "갈홍의 현 개념은 양한시기 본원론과 위진현학의

10) 揚雄, 『太玄』, 「玄攡」, "玄者, 幽攡萬類而不見形者也. 資陶虛無而生乎規, 神明而定摹, 通同古今以開類, 攡卦都陰陽而發氣. 一判一合, 天地備矣. 天日迴行, 剛柔接矣. 還復其所, 終始定矣."

11) 葛洪, 『抱朴子內篇』, 「暢玄」, "玄者, 自然之始祖, 而萬殊之大宗也. 眇昧乎其深也, 故稱微焉, 緜邈乎其遠也, 故稱妙焉. 其高則冠蓋乎九霄, 其曠則籠罩乎八隅, 光乎日月, 迅乎電馳. 或燦爛而景逝, 或飄灑而星流, 或混漾於淵澄, 或雰霏而雲浮."

12) 葛洪 撰, 王明 校釋, 『抱朴子內篇校釋』, 北京: 中華書局, 1988, p.4.

13) 許亢生, 『三國兩晉玄佛道簡論』, 山東: 齊魯書社, 1991, p.401.

본체론의 두 가지 사상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고 하였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논자의 견해는, 갈홍은 '현도의 체득(得玄道)를 통하여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신선사상의 이론적 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자의 '도를 표현하기 위해 쓰인 현¹⁶⁾을 끌어와 신선사상에 부합한 신비롭고 절대적이며 영원불멸한 현으로 승화시켰다. 또한 갈홍은 우주만물의 근원이자 근거가 되는 현과 도를 짝을 이루게 하여 '현도를 체득한 자는 신선의 경지에 이른다'는 仙道의 실천철학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도의 수식어인 노자의 현과 양웅의 태현, 위진현학의 현 사상을 모두 계승하여 신선사상의 이론적 체계를 이룰 수 있는 '신선사상의 근거로서의 현'으로 발전시켜 신선사상의 본체론과 선도수련으로 연계시킨 것이다.

현은 형체를 가진 만물에 의해서 有가 되고, 정적 속에 몸을 감추면 無가 된다. 유명계에 감기면 아래로 깊이 가라앉고, 북극성을 넘어 위로 높이 떠다닌다. 금속이라 할지라도 그 굳셈에는 비견할 수 없으며, 촉촉이 내리는 이슬이라 할지라도 그 유연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方形이지만 모나지 않으며, 圓形이지만 둥글지 않다. 온다 해도 그것을 볼 수 없고, 간다 해도 좇을 수가 없다. 현으로 인해 하늘은 높아지고, 땅은 낮아지며, 구름은 날아다니고, 비는 내리게 된다.¹⁷⁾

현은 우주가 시작되기 전의 원초적 근원으로써 無가 되며, 만물을 생성함으로써 有가 된다. 갈홍의 현은 태초가 시작되기 전의 카오스와 같고 만물을 창출하는 절대자와도 같다. 무와 유를 모두 지닌 현은 그 무엇보다

14) 卿希泰 主編, 『中國道教史』,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6, p.307.

15) 이진용, 「포박자내편의 玄道 一에 대한 이해」 『도교문화연구』 제26집, 2007, pp.129-130. (앞에 논의한 왕명과 허향생이 주장한 갈홍의 현 개념은 이진용의 같은 책 p.128에서 참조함)

16) 『道德經』 第1章,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第6章, “玄牝” 第10章, “玄覽”, “玄德” 第15章, “玄通” 第56章, “玄同” 등 노자의 玄은 道를 표현하기 위한 서술어 내지 도에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17) 葛洪, 『抱朴子內篇』, 「暢玄」, “因兆類而爲有, 托潛寂而爲無, 淪大幽而下沈, 凌長極而上游, 金石不能比其剛, 湛露不能等其柔. 方而不矩, 圓而不規, 來焉莫見, 往焉莫追. 乾以之高, 坤以之卑, 雲以之行, 雨以之施.”

다 절대적이고 신비롭기에 볼 수도 좇을 수도 없으며, 이러한 현으로 인해 천지만물이 이루어지고 조화롭게 안배된다.

현은 元一을 안에서 잉태하여, 그것이 兩儀를 만들어내며, 숨 쉬어 太始를 내놓고, 불어서 수역 가지 무리를 만든다. 그리하여 28宿를 하늘에 돌게 하여 최초의 세계를 창출시킨다. 신비한 천지조화의 기틀을 채찍질하여, 사계의 기를 불어 낸다. 현은 천지간의 조화된 원기를 그윽하게 간직하고, 선명하게 무르익은 정을 펼쳐 낸다. 현은 혼탁함을 억누르고, 맑음을 높이 들어 황하와 위수의 물을 안배한다. 더하여도 넘치지 않고, 빼내어 써도 결핍되지 않으며, 더해 주어도 변성하지 않고, 빼앗아도 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이 있는 곳은 무궁한 즐거움이 있으며, 현이 없는 곳엔 형체가 붕괴되고 정신은 사라져 버린다.¹⁸⁾

현은 유일한 실재인 元一을 잉태하고, 원일은 음과 양의 범주로 만물을 전개한다. 이러한 갈홍의 현은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¹⁹⁾라는 노자의 도 개념을 현으로 표현한 것이다. 노자의 도와 같은 의미를 지닌 현은 太始를 불어 만물을 생성·윤행하여 최초의 세계를 창출한다. 현으로 인해 만물은 조화롭게 안배되고 현이 있기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갈홍이 제시한 元一·兩儀·太始에 대하여 왕명은 “원일은 천지인이 뒤섞여 합쳐진 元氣를 가리키며, 양의는 천지를, 태시는 원기가 만물을 생성하는 시작의 상태를 가리킨다.”²⁰⁾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논자의 견해는, 현이 잉태한 유일한 실재인 원일은 노자의 일의 개념과 원기의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양의는 음양의 兩 범주로 천지와 만물의 원리가 된다. 그리고 태시는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숨(息, breath) 곧 생명력이다. 이와 같이 현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원리

18) 葛洪, 『抱朴子內篇』, 「暢玄」, “胞胎元一, 範鑄兩儀, 吐納太始, 鼓治億類, 回旋四七, 匠成草昧, 轡策靈機, 吹噓四氣, 幽括冲默, 舒闡榮尉, 抑澗揚清, 斟酌河渭, 增之不溢, 挹之不匱, 與之不榮, 奪之不瘠. 故玄之所在, 其樂不窮, 玄之所去, 器弊神逝.”

19) 『道德經』第42章,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20) 葛洪 撰, 王明 校釋, 『抱朴子內篇校釋』, 北京: 中華書局, 1988, p.4. 참조

로 창조의 원동력인 원일을 품어 기르고 만물을 생성하며 자연을 조화롭게 운행하고 변화시킨다. 신비롭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현은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고 어머니의 자애로움과도 같아 현이 없이는 형체도 정신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갈홍은 “오직 玄道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한다.”²¹⁾라고 하였다. 신선사상의 핵심주제는 영원불멸의 신선이 되는 것으로 장생불사에 그 목적이 있다. 갈홍은 영원불멸한 신선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궁극적 원리로서의 본체론을 탐색하였고, 『포박자 내편』 첫 번째 章 「暢玄」에 우주만물의 생성원리인 영원하고 절대적인 현을 제시하여 신선사상의 본체론을 펼쳤다. 또한 형이상학의 현과 선도수련의 상호연계성을 위해 같은 장인 「창현」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현도의 체득’을 제시함으로써 배움으로 터득과 체득이 가능한 神仙可學論의 이론적 체계를 세운 것이다. 다시 말해 우주만물의 근원이자 영원한 생명의 원천인 현도는 소우주인 인간의 몸에도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신비롭고 초월적인 현도는 思神守一의 방술을 통하여 체득이 가능한 것으로, 현도를 수련하고 터득한 사람은 장생불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저 현도라는 것은, 내심으로 깨닫고 외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작용시키는 것은 정신이고 이것을 잊게 하는 것은 육체이다. 이것이 현도를 간직하는 중요한 말이다. 그것을 얻은 사람은 귀해지니 黃鉞의 위엄이 필요치 않으며, 그것을 체득한 사람은 부유해지니 難得의 재화를 필요치 않는다. 그 높음은 쉽사리 오를 수 없으며,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흐르는 빛을 타고 나는 햇빛을 채찍하여 대공위로 높이 오르고 대지를 관통하며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넓고 넓은 문을 지나 가없는 들판을 노닌다. 불가시의 세계를 소요하며, 미묘하고 헤아릴 수 없는 혼동으로 세계를 떠돈다. 구름 위에서 단약을 마시고 붉은 노을 속에서 공기를 씹는다. 막막한 경지를 배회하며 미묘한 세계를 맴돈다. 구불구불한 무지개를 건너서 북두의 별인 璇과 璣를 밟는다. 이것이 현도를 터득한 사람이다.²²⁾

21) 葛洪, 『抱朴子內篇』, 「暢玄」, “其唯玄道, 可與爲永.”

22) 葛洪, 『抱朴子內篇』, 「暢玄」, “夫玄道者, 得之內乎, 守之者外, 用之者神, 忘之者器. 此

현도는 정신과 육체를 지키는 영원한 삶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현도를 깨닫고 체득한 사람은 黃鉞의 위엄도 難得의 재화도 필요치 않는 귀하고 부유한 자이며, 초인적 능력과 더불어 자유와 불멸의 삶을 산다. 갈홍의 현도를 체득한 사람이란 곧 신선의 형상이다. 『『포박자내편』에서의 도의 형이상학은 도의 본체론을 토대로 하여 선도수련의 기초가 되는 현도 관념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도는 곧 정신을 생각하여 하나를 지키는 것(思神守一)이다.”²³⁾ 갈홍의 현도는 영원한 삶의 원천으로 인간이 수련하고 터득하여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도를 체득한 자는 영원불멸의 신선이 되어 세속에 구애받지 않고 천지자연과 더불어 자유롭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갈홍은 우주만물의 근원이자 본질인 현을 밝히고, 나아가 영원한 삶의 원천인 ‘현도’를 제시하여 신선의 삶으로 연결시켰다. 즉 그는 우주와 인간의 상호연계성이라는 사상적 기반으로 신선사상을 전개하였으며, 나아가 형이상학의 현도를 도교의 궁극적 목표인 신선으로 귀결시켰다. 이와 같이 갈홍은 우주의 근원인 현도를 수련하고 체득하여 신선이 될 있다는 선도수련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갈홍은 도의 수식어인 노자의 현과 양웅의 태현, 위진현학의 현 사상을 계승하여 신선사상의 이론적 체계를 이룰 수 있는 신비롭고 초월적인 현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현은 우주가 시작되기 전의 원초적 근원이자 원리로써 만물을 생성·육성·안배한다. 나아가 갈홍은 신선사상의 근거가 되는 현·도를 짝을 이루게 하여 ‘영원한 삶의 원천인 현도’를 제시하였고, ‘신선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우주만물의 본질인 현도를 수행하고 체득하여 형신과 합일·일체 시킴으로써 신선사상의 궁극적 목표인 신선에 이를 수 있다’는 선도의 실천철학을 체계화하였다. 즉 그는 신선사상의 본체론과 선도수련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思玄道之要言也。得之者貴，不待黃鉞之威，體之者富，不須難得之貨。高不可登，深不可測，乘流光，策飛景，凌六虛，貫涵容。出乎無上，入乎無下，經乎汗漫之門，游乎窈眇之野，逍遙恍惚之中，徜徉仿佛之表，咽九華於雲端，咀六氣於丹霞，徘徊茫昧，翱翔希微，履略蜿蜒，殘跚璇璣，此得之者也。”

23) 卿希泰 主編, 『中國道教史』, 四川人民出版社, 1996, p.309.

Ⅲ. 현실 사회의 총 근원으로서의 道

道는 보편적으로 자연의 법칙이자 원리이며 사물의 이치이고 사람의 도리를 뜻한다. 도의 개념은 고대 동양인들의 우주관과 천지만물의 생성과 궁극적 원리 추구에서부터 비롯된다. 노자는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道可道非常道)'라고 하였고, 장자는 '도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道無終始)'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도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도교의 핵심사상인 도는 천지만물의 생성원리·존재의 근원·자연 법칙 등 천지만물의 보편적 이법인 天道를 강조하였고, 반면에 유교의 도는 도덕적 윤리·사회질서·정의실현 등 인간사회의 보편적 이법인 人道를 강조하였다. 또한 『중용』에서는 '修道之謂教'라 하였고 『장자』에서는 '道之眞以治身'이라 하는 등 유교와 도교 모두 도의 수련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도는 모든 원리와 법칙을 아우르는 중요한 범주이며 수련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갈홍의 도는 우주만물의 근원이며 법칙이자 현실 사회의 총 근원으로서 '도를 배우고 수행하여 체득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신선사상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어떤 사물이 뒤섞여 이루어져 있어 천지보다도 먼저 생겨났다. 고요하기도 하고, 적막하기도 하여, 홀로 서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두루 행해지면서도 위태함이 없으니, 천하의 어미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아직 알지 못한다. 다만 글자로 말하면 道라하고, 억지로 말한다면 大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²⁴⁾

노자는 도를 우주만물의 원리와 법칙이며, 도는 천지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으로 암흑의 카오스와도 같고 천하의 어미와도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자의 도는 갈홍의 玄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노자의 현은 단순히 도를 표현하는 수식어이지만 갈홍의 현은 도의 수식어가 아닌

24) 『道德經』第25章, “有物混成,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而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

도와 동등한 관계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갈홍은 노자의 도를 계승하여 신선사상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현과 도라는 병렬적 구조로 변용·발전시켰다. 즉, 현은 우주 기원의 원초적 원리이며 도는 만물의 근원이자 궁극적 질서라는 병렬적 구조로 신선사상이 전개된다.

도는 천지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그 근원은 無名에 있다. 그러나 無를 논하려고 한다면 그림자와 메아리는 오히려 있는 것이고, 한편 有를 논한다면 만물은 오히려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

갈홍은 천지를 포괄하는 도의 근원은 無名에 있지만, 無를 논하는 것은 형상이 있는 有를 밝힘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유로서의 형상은 결국 그 근원인 무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갈홍의 현은 형체를 가진 것에 의해서 有가 되고 정적 속에서는 無가 되므로 유무를 모두 지니고 있지만(因兆類而爲有, 托潛寂而爲無), 만물의 근원이 되는 도의 그 근원은 무에 있지만 유도 무도 아니기에 미묘한 것이 된다. 이 차이점은 미세한 서로의 역할을 나타낼 뿐이며 결국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현이 우주원리의 원초적 혼돈의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도는 우주원리의 궁극적 질서의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포박자내편』의 현과 도는 동일한 원초적 원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과 도는 천지자연의 양면이다.”²⁶⁾ 갈홍의 현과 도를 분류하자면 현은 원일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여성적인 성향을 지니며 반면에 도는 자연과 사회의 근본 원칙과 규율로서 남성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과 도는 만물을 서로 공유하며 때로는 분담하여 만물을 잉태·생성·변화시키는 병렬적 구조로 천지자연의 양면, 즉 우주만물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처럼 서로를 수식하며 더욱 신비롭고 완벽해진다.

25) 葛洪, 『抱朴子內篇』, 「道意」, “道者涵乾括坤, 其本無名. 論其無, 則影響猶爲有焉, 論其有, 則萬物尙爲無焉.”

26) 이용주, 『생명과 불사』, (주)이학사, 2009, p.171.

가까운 것으로 말하자면 도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들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고, 먼 것으로 말하자면 하늘에 닿고도 오히려 부족하다. 소리를 소리 지우는 것이고, 메아리를 메아리 되게 하는 것이며, 형체를 형체 지우는 것이고, 그림자가 그림자로서 드리워지는 것은 모두가 도의 작용이다. 네모난 대지는 그것으로 인해 안정되고 둥근 하늘은 그것으로 인해 움직이며, 내려가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올라간다. 그것을 억지로 이름 지어 도라 하면 이미 그 참됨을 잃게 된다.²⁷⁾

갈홍은 소리, 메아리, 형체, 그림자, 대지, 하늘, 비 등의 천지자연이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도의 작용이며, 이러한 도를 개념 지으려하면 그 의미를 잃게 된다고 하였다. 도는 만물의 근원이자 천지자연의 원천이며 규율이 되지만 도를 규정지을 수는 없다. 나아가 갈홍은 『주역』의 도를 인용하여 天道, 地道, 人道 그리고 治身과 治國에 대한 도의 원리와 작용을 설명하고, 도는 제자백가와 모든 인륜도덕의 기본 원천이라 말한다.

대저 이른바 도가 어찌 양생의 일만 해당하겠는가! 『역』에서 이르기를 “하늘의 도를 세우는 것은 음과 양이고, 땅의 도를 세우는 것을 유와 강이며, 사람의 도를 세우는 것은 인과 의이다.” 또 이르기를, “『역』에 성인의 도에는 네 가지가 있다.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도가 무언가에 의지해 행해질 수 없다.” 세상이 잘 다스려져서 융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면 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반대로 나라가 위태롭고 군주의 정사가 어지러우면 이는 도가 없는 것이다. 또 조정에서 도를 논하는 것은 삼공의 정사를 일컫는 것으로 나라에 도가 있으면 모자라고 천한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도는 천지에서부터 만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것에 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략) 지금의 세상은 유학을 중시할 줄만 알고, 그러한 유학도 도가의 도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철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도야말로 백가의 주장을 총

27) 葛洪, 『抱朴子內篇』, 「道意」, “以言乎邇, 則周流秋毫而有余焉。以言乎遠, 則彌綸太虛而不足焉。爲聲之聲, 爲響之響, 爲形之形, 爲影之影, 方者得之而靜, 員者得之而動, 降者得之而俯, 升者得之以仰, 強名爲道, 已失其眞.”

괄하며, 양의를 양성하고, 만물을 생성하며, 모든 인륜 도덕의 원천이 된다.²⁸⁾

무릇 도라는 것은 안으로 자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나라의 정사를 다스릴 수도 있다. 도에 의해서 해와 달, 별들이 정해진 궤도를 어김없이 돌고, 음과 양의 두 기가 조화를 이루며, 四時는 추위와 더위의 절도를 잃지 않으며, 風雨는 사물을 해치는 재앙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시의 기후가 조화를 이루면 천하에는 태평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며, 감미로운 샘이 솟는 것은 王者의 덕이 가득함을 드러낸 것이다. (중략) 높은 하늘에 태양이 빛나고, 오곡은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고 모든 화근이 사라져 버린다. 구태여 적을 막기 위해서 참호를 팔 필요도 없기에 무기고의 병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의논이 없어도 당연히 행해지며, 약속한 바가 없어도 신용은 지켜지고, 맺지 않아도 견고해지며, 모의하는 일이 없어도 일은 저절로 성사되고, 상을 주지 않는다 해도 열심히 일을 하며, 벌을 내리지 않는다 해도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중략) 아무런 명령도 없지만, 풍속은 저절로 미화된다. 이것이 바로 도에 의한 지배인 것이다.²⁹⁾

이와 같이 만물의 근본인 도는 영험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천지만물을 조화롭게 양육한다는 점에서는 현과 동일하다. 갈홍의 도는 천지만물을 생성·육성하며 더 나아가 안으로는 개인의 양생, 밖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원천이다. 또한 도는 인륜과 사회의 총 근원이 되며 모든 학문을 아우른다. 도의 작용으로 인하여 해와 달, 이십팔수가 조화롭게 운행하고 사계절이 순환하며 비와 바람은 재앙을 제거한다. 또한 도에 의해 다스려진 나라와 개인은 순조롭고 조화로우며 아름답다. 도는 만물의 생성원리이

28) 葛洪, 『抱朴子內篇』, 「明本」, “夫所謂道, 豈唯養生之事而已乎! 易曰 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與義. 又曰 易有聖人之道四焉, 苟非其人, 道不虛行. 又於治世隆平, 則謂之有道, 危國亂主, 則謂之無道. 又坐而論道, 謂之三公, 國之有道, 貧賤者恥焉. 凡言道者, 上自二儀, 下逮萬物, 莫不由之. (중략) 今苟知推崇儒術, 而不知成之者由道. 道也者, 所以陶冶百氏, 範鑄二儀, 胞胎萬類, 醞釀彝倫者也.”

29) 葛洪, 『抱朴子內篇』, 「明本」, “夫道者, 內以治身, 外以爲國, 能令七政遵度, 二氣告和, 四時不失寒燠之節, 風雨不爲暴物之災, 玉燭表升平之徵, 澄禮彰德治之符. (중략) 景耀高照, 嘉禾畢遂, 疫癘不流, 禍亂不作, 塹壘不設, 干戈不用, 不議而當, 不約而信, 不結而固, 不謀而成, 不賞而勸, 不罰而肅, (중략) 令未施而俗易, 此蓋道之治世也.”

며 존재이유로 우주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칙이며 법칙이 된다. 갈홍은 천지만물의 보편적 이법을 강조한 도교의 도와 인간사회의 보편적 이법을 강조한 유교의 도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신선사상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즉 갈홍의 도는 우주만물의 원리이자 법칙이며 현실 사회의 총 근원으로서 우주와 인간세상 그리고 개인을 연계시키는 이론적 단초가 된다. 이러한 도는 형이상학적 본체론뿐만 아니라 치국과 치신의 원천이며, 나아가 '도를 배움과 수련으로 터득하여 신선에 이를 수 있다'는 선도수련의 궁극적 실재이다.

도를 터득한 사람은 무지개나 저녁노을 위에 노닐 수 있고, 사방의 높은 낭떠러지를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으며,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 해도 쓸쓸하지 않다. 희생물로 올려질 살찐 짐승이 서로 모여 있음에, 비록 그들이 비단을 둘렀다 한들 그 즐거움을 논하자면, 어찌 자유로운 기린이 무리를 벗어나 홀로 다닐 것과, 吉光神獸가 짝을 잃었지만 복이 많은 것에 견주겠는가!³⁰⁾

갈홍은 현도의 체득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에 이어서 도의 수련과 신선의 삶을 말한다. 즉 도를 수련하여 체득한 자는 영원불멸의 신선이 되는 것이다. “갈홍의 도교철학의 본체론에서 도의 범주는 형이상학적 우주 본체로부터 마지막으로 형이하의 신선도교로 전환한다. 그 중간에 있는 一의 범주는 그러한 연역의 관건이 된다. 그리하여 도사는 오로지 守一이라는 存思氣功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道化를 자신의 내면적 체험으로 체득하게 되고, 그렇게 하여 자신의 정신과 도가 융합하여 일체가 됨으로써 神에 통하여 仙을 이루게 된다. 도는 이렇게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으로부터 종교화 및 方術化의 과정을 거쳤고, 그 철학적 특징을 도사의 精, 氣, 神안에 융합하여 體道合眞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도'에 복귀

30) 葛洪, 『抱朴子內篇』, 「明本」, “夫道也者, 逍遙虹霓, 翱翔丹霄, 鴻崖六虛, 唯意所造. 魁然流擯, 未爲戚也. 犧脂聚處, 雖被藻繡, 論其爲樂, 孰與逸麟之離羣以獨往, 吉光坻偶而多福哉!”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도사는 추상적인 신선에 경지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개념이 도출되는 논리적 과정은 형이상에서 형이하로, 추상에서 구체로, 구체에서 다시 추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³¹⁾ 이렇게 하여 갈홍은 우주의 근원인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도를 배움과 수행으로 체득하게 되면 신선을 이룰 수 있다는 신선사상의 이론을 구체화시킨다.

이상과 같이 갈홍의 도는 우주만물의 근원이자 법칙이며, 나아가 안으로는 개인의 양생, 밖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원천으로 인류와 사회의 총 근원이 된다. 이러한 갈홍의 도는 도교의 도와 유교의 도를 조화롭게 융화시킨 儒道화합적 사상이 엿보인다. 또한 갈홍은 도를 신선사상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즉 갈홍의 도는 思神守一의 수련으로 체득 가능하며, 도와 形神合一함으로써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영원불멸한 신선의 경지에 이른다는 신선사상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IV. 玄·道の 매개로서의 一

노자는 천지만물이 생성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모두 一의 작용이라 하였다.³²⁾ 초기도교에서 일의 개념은 道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점차 도의 의미와 더불어 '일을 지킴으로써 장생을 이룰 수 있다'는 양생론의 의미가 더해진다.³³⁾ 갈홍은 이러한 일에 신령스러운 의미를 부여하여 신선사상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갈홍의 일은 신선사상의 실체 개념으로서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玄道와 道를 체득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玄·道와 같은 개념이면서도 유일하게 짝이 없는 일은 만물

31) 胡孚琛, 『魏晉神仙道教-抱朴子內篇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1987, pp.199-201.

32) 『道德經』第39章, “昔之得一者, 天得一以清, 地得一以寧, 神得一以靈, 谷得一以盈, 萬物得一以生, 候王得一以爲天下貞, 其致之一也.”

33) 『太平經』, “天下守一失其清, 地下守一失其寧, 神不守一不生成, 人不守一不活生.” 『淮南子』, “一者, 心也, 意也, 志也. 念此一身中之神也.” 『周易參同契』, “抱一無舍, 可以長存.”

을 주재하기도 하며, 신비로운 신적 권위가 부여되어 인격신이 되기도 한다. “일은 신적 의지로서 우주만물을 주재하는 신령이 된다.”³⁴⁾ 양한시기 도교학자들은 인체는 우주와 상응하는 작은 우주이며, 일은 인체 가운데 특정한 부위에 위치한다고 여겼다. 갈홍은 이러한 관점을 이어받아 일을 인체 단전 가운데 자리하는 인격신으로 본다.³⁵⁾

이처럼 갈홍의 일은 더욱 신령스럽고 구체화되어 실천적 수련방법인 守眞·守玄의 存思氣功으로 현도와 도를 신선세계로 연결시킨다. 즉 인간의 몸은 우주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우주이기에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현·도·일을 모두 내재하고 있다. 특히 단전에 자리한 일은 신령스러움이 더해진 인격신으로 思神守의 수련을 통해 현도와 도를 깨닫고 체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인간은 영원한 삶의 원천인 현도와 우주만물의 근원이자 법칙인 도를 터득·체득함으로 신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갈홍은 현·도·일을 신선사상의 근거로 제시하여 신선사상의 본체론을 펼쳤고, 나아가 '형이상학의 현·도·일을 배우고 수양하여 신선에 이른다는 선도수련의 이론을 구체화하였다.

—을 지키고 진리를 보존하면, 신과 능히 통할 수 있다. 바라는 것을 줄이고 먹을 것을 조절하면 일은 휴식을 취한다. 시퍼런 칼날이 목에 닿는다 할지라도 일을 생각하면 살 수가 있다. 일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일을 잃지 않고 지키면, 무궁할 수 있다. 땅에서는 맹수의 공격을 피하고, 물에서는 교룡을 물리칠 수 있고 산도개비나 독충이라도 두렵지 않다. 귀신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며, 칼이라도 해도 뺄 수가 없다. 이것이 이른바 眞—이라 하는 것이다.³⁶⁾

玄—의 도 또한 중요한 법이다. 그것은 모든 災害를 피할 수 있는 법으로 眞—

34) 劉鋒·藏知非, 『中國道教發展史綱』, 臺北: 文律出版社, 1997, p.138.

35) 이진용, 「포박자내편의 玄, 道, —에 대한 이해」, 『도교문화연구』 제26집, 2007, p.139.

36) 葛洪, 『抱朴子內篇』, 「地眞」, “守—存眞, 乃能通神. 少欲約食, 一乃留息. 白刃臨頸, 思—得生. 知—不難, 難在於終. 守之不失, 可以無窮. 陸鬪惡獸, 水卻蛟龍. 不畏魍魎, 挾毒之蟲. 鬼不敢近, 刃不敢中. 此眞—之大略也.”

에서의 功과 같다. 나의 『내편』의 첫 권의 편명을 暢玄이라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일을 지키는 법은 진일을 지키는 것 보다는 쉽다. 진일은 姓字·長短·服色이 있지만 현일은 하루 중 그것을 처음 구할 때는 단지 그것을 보는데 그친다. 이른바 白을 알고 黑을 지키면,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백 일 동안 재계하며 현일을 얻을 때 까지 마음속으로 구해야한다. 그리하면 삼사 일을 넘기지 않고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얻어서 지키면 달아나는 일이 없다. 현일을 지키면서 자신의 몸이 세 사람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염원하면 곧 分身된다. 또 더욱 발전하면 수십으로 나타나니 모두 자신의 몸과 같다.³⁷⁾

갈홍은 眞一을 지키면 맹수, 교룡, 산도깨비, 독충, 귀신은 물론 칼에도 안전한 영원불사의 몸이 되어 무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玄一은 몸을 맑은 물이나 거울에 투영하여 여러 명으로 分身시키는 분형의 도이다. 갈홍은 이러한 수진일과 수현일을 통하여 자신 안의 정신활동을 관장하는 三魂과 七魄을 볼 수 있고, 天靈과 地祇들을 만나볼 수도 있으며, 산천의 신들을 부릴 수 있다고 여겼다.

나의 스승께서는 “사람이 一을 분명하게 알면 만사는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모르는 것이 없다는 뜻이고, 반대로 일을 알지 못하면 한 가지도 아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일이란 도의 근원으로서, 도는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고귀함은 짝을 이룰 상대가 없다. 일은 각각 다른 곳에 거처하며 천지인을 그 형상으로 삼으니, 고로 三은 一이라 한 것이다.³⁸⁾

갈홍은 일을 깨닫는 것은 모든 이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며, 일은 곧 도

37) 葛洪, 『抱朴子內篇』, 「地眞」, “玄一之道, 亦要法也. 無所不關, 與眞一同功. 吾『內篇』第一名之爲「暢玄」者, 正以此也. 守玄一, 復易於守眞一. 眞一有姓字·長短·服色. 此玄一但自見之, 初求之於日中, 所謂知白守黑, 欲死不得者也. 然先當百日潔齋, 乃可候求得之耳. 亦不過三四日得之. 得之守之, 則不復去矣. 守玄一, 并思其身, 分爲三人. 三人已見, 又轉益之, 可至數十人, 皆如己身.”

38) 葛洪 『抱朴子內篇』, 「地眞」, “抱朴子曰 余聞之師云, 人能知一萬事畢, 知一者, 無一之不知也, 不知一者, 無一之能知也. 道起於一, 其貴無偶, 各居一處, 以象天地人, 故曰三一也.”

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갈홍의 '일은 도의 근원으로서, 일에서 도가 비롯된다'는 구절은 '도는 일을 낳는다(道生一)'라는 노자의 도와 일에 관계를 역설한 것 같지만, 도와 일의 관계는 병렬적 구조로 서로가 서로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포박자내편』 「地眞」편의 다음 구절을 보면 현·도와 일이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늘은 一을 얻어 푸르고 땅은 일을 얻어 평안하고, 정신은 일을 얻어 신령하게 된다. 금속은 가라앉고 깃털은 뜨며, 산은 솟아오르고 물은 흘러가지만 이것은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다. 만물은 일이 있어야 비로소 존재하고, 일이 없으면 곧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일을 지향하면 길하게 되고, 일을 등지면 흉하게 된다. 일을 지키면 무궁한 생명을 누릴 수 있지만 일을 잃으면 생명이 단축되어 마침내 기가 다하고 만다. 노군께서 '황홀하고 황홀하다! 그 속에 象이 있다. 황홀하고 황홀하다! 그 안에 物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곧 일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³⁹⁾

일은 음양을 이루고 추위와 더위를 다스린다. 봄은 일을 얻어 싹을 틔우고, 여름은 일을 얻어 성장하며, 가을은 일을 얻어 수확을 거두어들이고, 겨울은 일을 얻어 저장하게 된다. 그 크기는 우주로도 한계 지을 수 없고, 그 작기는 毫擘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⁴⁰⁾

갈홍은 노자의 "옛날 一을 얻음에 있어서, 하늘은 일을 얻어 푸르고, 땅은 일을 얻어 강령하고 정신은 일을 얻어 신령하게 되고, 계곡은 일을 얻어 짙 차게 되며, 만물은 일을 얻어 삶을 얻으며 후왕은 일을 얻어 천하가 바르게 된다."⁴¹⁾라는 일의 개념을 계승하여 신선사상의 이론적 체계를 이룰

39) 葛洪, 『抱朴子內篇』, 「地眞」, "天得一以清, 地得一以寧, 人得一以生, 神得一以靈, 金沈羽浮, 山峙川流, 視之不見, 聽之不聞, 存之則在, 忽之則亡, 向之則吉, 背之則凶, 保之則遐, 祚之則極, 失之則命凋氣窮, 老君子 '忽兮恍兮, 其中有象, 恍兮忽兮, 其中有物, 一之謂也.'"

40) 葛洪, 『抱朴子內篇』, 「地眞」, "一能成陰生陽, 推步寒暑, 春得一以發, 夏得一以長, 秋得一以收, 冬得一以藏, 其大不可以六合階, 其小不可以毫芒比也."

41) 『道德經』第39章, "昔之得一者, 天得一以清, 地得一以寧, 神得一以靈, 谷得一以盈, 萬物得一以生, 侯王得一以爲天下貞."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신비로운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일은 현으로 인해 잉태되고 도에서 생성된다. 하지만 도의 근원이 되는 것 또한 일이다. 갈홍의 현·도·일의 관계는 다소 복잡한 듯 하지만 결국은 병렬적 구조로 서로가 서로의 근원이 되며 서로가 서로를 수식하는 관계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갈홍은 초기도교부터 내려오던 일의 개념을 계승하여 신선사상에 부합한 신령스러운 일로 승화시켰으며, 이러한 일을 신선사상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현·도와 같은 의미를 지닌 일은 더욱 신비롭고 구체화되어 실천적 수련방법인 수진일·수현일의 존사법을 통하여 현도와 도를 신선세계로 연결시킨다. 즉 일은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현도와 도를 신선사상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갈홍은 우주만물의 근원이자 법칙인 현·도·일을 수련과 체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터득하고 체득하여 궁극목표에 도달한다는 신선사상의 이론체계를 세웠다. 다시 말해 '형이상학의 현·도·일을 배우고 수행하여 신선에 이른다'는 갈홍의 신선사상은 우주의 근원인 현·도·일과 배움으로 신선이 된다는 神仙可學論의 상호연계성이라는 사상적 기반 위에서 성립된 것이다.

V. 갈홍 신선사상의 특징

본 장에서는 갈홍 신선사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중국의 역사에서 신선에 대한 기록은 전국시대부터 보인다. 장자는 神人, 眞人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며, 전한시대에 이르러 求仙의 기풍이 일어났고, 서한의 학자 劉向은 중국 최초의 신선설화인 『열선전』을 집필하였다. 진시황은 신선의金丹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무제는 신선과 방술에 심취하는 등 중국의 황실에서는 신선을 구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 신선사상은 주로 제왕과 제후들이 신선을 찾아 불로불사의 단약을 얻으려는 구선의 기풍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선을 찾는 일은 번번이 실패하였고, 구선의

기풍은 점차적으로 직접 신선이 되기 위해 수련을 하는 修仙의 기풍으로 전환하게 된다. 수선의 기풍은 한나라 때에 흥기했으며, 服食·行氣·導引 등 여러 가지 수선이 유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선사상은 중국의 역사적 사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갈홍은 진시황, 한무제, 위문제 曹丕, 위나라 진사왕 曹植, 후한의 선인 甘始 등의 사례와 옛 문헌과 傳聞에 근거하여 신선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이 세상에 만물이 생긴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중에서도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는 사람이다. 이처럼 귀한 천성이라면 모두가 균등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현명함과 어리석음, 바름과 비틀어짐, 아름다움과 추함, 키가 크고 작음, 기질의 맑음과 탁함, 정숙함과 음란함, 느림과 빠름, 발의 더딤과 날쌘, 사는 방법, 귀와 눈의 취향 등등 모든 것이 같지 않음이다. 이미 하늘과 땅의 차이가 크게 다르고, 얼음과 석탄이 서로 같지 않은데, 어찌 하여 오직 신선이 범인과는 달리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만을 의심할 것인가! (중략) 신선으로 말하면 약물로 몸을 기르고, 술수로 수명을 연장하여 내부에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외부로부터는 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오래도록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젊은 몸 그대로이다. 진실로 그 도를 터득만 한다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중략) 하물며 신선의 심원한 이법과 도덕의 유험함에 대해 천박한 견문만 가지고 그 미묘함의 유무를 함부로 단언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⁴²⁾

갈홍은 자연 만물에도 각각의 차이가 있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 또한 각각의 차이를 지니고 있기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완고하거나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고와 좁은 식견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만을 진실이

42) 葛洪, 『抱朴子內篇』, 「論仙」, “正如此也久矣. 有生最靈, 莫過乎人. 貴性之物, 宜必鈞一, 而其賢愚邪正, 好丑修短, 清濁貞淫, 緩急遲速, 趨舍所向, 耳目所欲, 其爲不同, 已有天壤之覺, 冰炭之乖矣, 何獨怪仙者之異, 不與凡人皆死乎 (중략) 若夫仙人, 以藥物養身, 以術數延命, 使內疾不生, 外患不入, 雖久視不死, 而舊身不改, 苟有其道, 無以爲難也. (중략) 況乎神仙之遠理, 道德之幽玄, 仗其短淺之耳目, 以斷微妙之有無, 豈不悲哉?”

라 여기고 신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개탄하였다. 갈홍은 사물의 이치와 인간의 본질을 窮理·據得하여 신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다.

태고적 일은 눈으로 볼 수 없다. 모두가 기록에 의하거나 예부터 내려오는 전문에 의하거나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열선전』이라는 확실한 기록이 있다고 하면, 선인은 반드시 있다고 보아야 한다.⁴³⁾

갈홍은 서한의 유학자 유향의 『열선전』을 기반으로 신선이 반드시 존재함을 알렸고, 위진시대의 시인이자 현학자인 嵇康이 『양생론』에서 주장한 ‘기록과 傳聞에 의거한 신선존재론’을 계승하였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수련에 의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사역시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중략) 내 생각을 간략하게 말해 본다면, 신선이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과거의 기록이나 전적에 의해 전해지고 있으며 또 역사책에도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선은 특별한 기를 자연적으로 타고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지 배움의 축적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 그리고 양생의 수련에 의해 성명을 수양하여 많게는 수 천살적게는 수백 살까지 사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세상에서 모두 그 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⁴⁴⁾

혜강은 신선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특별한 기를 타고난 사람만이 이를 수 있는 것이며 범인은 성명수양으로 장수할 수 있다고 말

43) 葛洪, 『抱朴子內篇』, 「論仙」, “遼古之事, 何可親見, 皆賴記籍傳聞於往耳. 列仙傳炳然其必有矣.”

44) 嵇康 撰, 戴明揚 校注, 『嵇康集校注』, 北京: 中華書局, 2015, p.229. “世或有謂, 神仙可以學得, 不死可以力致者. (중략) 請試粗論之, 夫神仙雖不目見, 然記籍所載, 前史所傳, 較而論之, 其有必矣. 似特受異氣, 稟之自然, 非積學所能致也. 至于導養得理, 以盡性命, 上獲千餘歲, 下可數百年, 可有之耳. 而世皆不精, 故莫能得之.”

한다. 갈홍은 혜강의 신선존재론을 계승·확장하여 배움으로 신선이 될 수 있다는 神仙可學論을 제시한다. “갈홍의 신선론은 혜강의 신선존재론, 나아가 갈홍 이전의 모든 신선론과 근본적인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신선이란 선천적 자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양 및 배움의 노력에 의해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갈홍이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그것이 도교의 역사에서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갈홍이 체계화시킨 ‘신선은 배워서 도달할 수 있다(神仙可學而成)’라는 신선 도교의 근본 교리는 신선가학의 주장으로 정식화되어 갈홍 이후의 도교 사상의 정통적 이론으로 계승되었다.”⁴⁵⁾

신선에 이른다든 것은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열심히 恬淡虛靜으로 노력한다 면 가능한 것으로, 굳이 세속의 많은 재능을 요하지는 않는다. 세상에서 고귀한 명성을 얻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 높은 道를 터득한 것은 아니다. 천지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여 대약을 만들고 양생의 비결을 알면 長生久視할 수가 있다.⁴⁶⁾

노자와 팽조는 보통사람과 같을 뿐이다. 부류가 다른 것도 아닌데 홀로 장성한 것은 도를 얻었기 때문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다.⁴⁷⁾

갈홍의 신선가학론은 배움과 수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노자와 팽조 뿐 아니라 귀족·고대 사상가·조정관리·일반백성·노예·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이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와 불멸의 세계로 유도하고 싶은 갈홍의 소망이 내재되어 있다.

수명이 길고 짧음은 실제로 품부 받은 바에 말미암으니, 기를 받아 생명을 잉태함에 제각기 상응하는 星宿가 있다. 하늘의 도는 무위하여 사물 스스로 그러한 본성을 따르니 친소의 차이도 없고 피차의 구분도 없다. 어떤 사람의 운

45) 이용주, 『생명과 불사』, (주)이학사, 2009, p.144.

46) 葛洪, 『抱朴子內篇』, 「辨明」, “至於仙者, 唯須篤志至信, 勤而不怠, 能恬能靜, 便可得之, 不待多才也. 有入俗之高真, 乃爲道者之重累也, 得合一大藥, 知一養神之要, 則長生久視.”

47) 葛洪 『抱朴子內篇』, 「對俗」, “至於彭老猶是人耳, 非異類而壽獨長, 由於得道, 非自然也.”

명이 생수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선도를 좋아할 것이다. 선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신선이 되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일에 성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의 운명이 死星에 속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선도를 믿지 않는다. 선도를 믿지 않으므로 스스로 그것을 수행하려고 생각지 않는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품부 받은 성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바꾸거나 빼앗는 일은 하늘도 할 수 없다.⁴⁸⁾

갈홍은 모든 천지 만물에는 무위자연의 도가 부여되기에 인간 또한 자연의 질서에 그 운명이 정해지는 운명론을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무위자연의 도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갈홍의 신선가학론은 신선의 별자리를 타고 나아간다는 숙명론의 전제하에서 성립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신선가학론의 숙명론에 대해 이용주는 “갈홍의 신선가학론은 숙명설이라는 조건 위에 성립한다. 인간의 운명은 신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선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까지도 결정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운명이며, 자연이다. 여기서 우리는 갈홍이 애써 도달한 가학론이 다시금 운명론의 울타리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을 본다.”⁴⁹⁾라며 신선가학론의 한계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갈홍의 신선가학론은 숙명이라는 전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숙명이라는 ‘신선의 별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란 누구인지 알 수도 구분할 수도 없는 것이며 ‘이 사람이 신선의 별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확인이 불가능한 신선가학론의 숙명론은 신선을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내가 바로 신선의 별을 타고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선이

48) 葛洪, 『抱朴子內篇』, 「塞難」, “命之修短, 實由所值, 受氣結胎, 各有星宿. 天道無爲, 任物自然. 無親無疏, 無彼無此也. 命屬生星, 則其人必好仙道. 好仙道者, 求之亦必得也. 命屬死星, 則其人亦不信仙道, 不信仙道, 則亦不自修其事也. 所樂善否, 判於所稟, 移易予奪, 非天所能.”

49) 이용주, 「신선가학: 갈홍 신선론의 논리와 한계」, 『종교와 문화』 제6권, 2000, pp.207-208.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내가 바로 신선의 별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확신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갈홍은 신선이 되는 일이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알기에 신선가학론에 속명론을 결합하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신선이 되는 과정'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신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선가학론이 지닌 속명론은 이중성이나 한계가 아닌 가능성이자 희망이다. "신선의 운명을 타고나지 않으면 신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다. 신선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선도를 구한 자는 아직 없었고, 구하지 않고 그것을 얻은 자는 아직 없다"⁵⁰⁾ 여기서 '신선의 별을 타고 태어나지 않으면 선도를 믿지 않기에 노력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곧 '신선의 별을 타고 태어났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신선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신선의 속명론이라는 전제는 결국 인간의 후천적인 노력 없이는 이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홍의 신선가학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능동적인 의지와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천지만물에는 각각의 차이가 있듯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도 각각의 차이가 있다.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전제에서 벗어나 신선이 되고자 하는 굳은 신념과 의지 그리고 노력 등의 차이로 보편적인 죽음을 극복하고 불멸의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갈홍은 신선가학론을 통하여 설파한 것이다.

또한 갈홍은 신선의 등급을 구분하는 신선삼품설을 펼친다.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신분이 귀족·평민·천민으로 나누어지듯 신선 세상에서도 天仙·地仙·尸解仙이라는 세 등급의 신선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신선삼품설이라고 한다.

『선경』에 이르기를, 최고의 도사는 육체를 들어 허공에 오르니, 이를 천선이라 한다. 중등의 도사는 명산을 노니니, 이를 지선이라 한다. 하급의 도사는

50) 葛洪, 『抱朴子內篇』, 「辨明」, “苟不受神仙之命, 則必無好仙之心. 未有心不好之而求其事者也. 未有不求而得之者也.”

일단 죽지만 나중에 탈바꿈하니, 이를 시해선이라 한다.⁵¹⁾

『선경』에 이르기를, 상사가 도를 얻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천관이 되고, 중사가 도를 얻으면 곤륜산에 머물며 살고, 하사가 도를 얻으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산다.⁵²⁾

갈홍의 신선삼품설은 天·地·人을 구분하듯 하늘의 신선과 땅의 신선 그리고 인간 세상의 신선 즉 시해선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 최고의 신선은 천선을 가리키지만 갈홍이 추구하는 이상은 지선으로 표출되고 있다.

선인 가운데 하늘에 오르는 자도 있고 땅에 머무는 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장생하고, 머물거나 떠남에 제각기 그 좋아하는 바를 따르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⁵³⁾

옛날 황제는 천하를 다스리는 힘든 업무를 다했으면서도 정호에서 용을 타고 승천했다 한다. 팽조는 은나라 대부였지만 팔백 세를 산후에 서쪽 사막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노자는 주의 주사를 역임했고, 영봉자는 황제의 도정이었다. (중략) 옛 사람은 선도를 터득하였으면서도 조정에서 세상을 다스렸던 사람이 많았다. 대개는 능력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선도의 수행은 백성된 의무를 전폐하고 산림 속에 틀어박혀야만 반드시 완성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⁵⁴⁾

갈홍은 유교의 가문에서 태어나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현실을 바꾸어 보고자 하였으나, 혼란의 시기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長生成仙에 뜻을 품고 隱逸하여 仙道에 전념하였다. 또한 위진 시기의 사인들은 부패한 정치에 동조하지 않으려 몸은 산림에 있지만 마음은 조정을 떠나지 못한다

51) 葛洪, 『抱朴子內篇』, 「論仙」, “按『仙經』云, 上土舉形升虛, 謂之天仙. 中土游於名山, 謂之地仙. 下土先死後蛻, 謂之屍解仙.”

52) 葛洪, 『抱朴子內篇』, 「金丹」, “按『仙經』云, 上土得道, 升爲天官, 中土得道, 棲集昆侖, 下土得道, 長生世間.”

53) 葛洪, 『抱朴子內篇』, 「對俗」, “仙人或升天, 或住地, 要於俱長生, 住留各從其所好耳.”

54) 葛洪, 『抱朴子內篇』, 「釋滯」, “昔黃帝荷四海之任, 不妨鼎湖之舉. 堯祖爲大夫八百年, 然後西適流沙. 伯陽爲柱史, 甯爲陶正. (중략) 古人多得道而匡世, 修之於朝隱, 蓋有余力故也. 何必修於山林, 盡廢生民之事, 然後乃乎!”

(身在山林而心在魏闕)고 하였다. 신선삼품설의 지선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은일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갈홍과 사인들의 이상향이 반영된 것으로 유교와 도교의 화합적 사상을 소망하는 마음을 표출한 것이다. 안으로는 신선의 도를 터득하고 밖으로는 세상사와 조화를 이루는 지선은 갈홍사상의 궁극적 이상으로, 이러한 유도 화합적 사상은 신선삼품설의 지선뿐만 아니라 신선의 윤리적 수행론⁵⁵⁾과 신선가학론⁵⁶⁾에서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갈홍은 옛 문헌과 전문에 근거하여 신선이 분명히 존재함을 입증하고, 신분·귀천·성별의 구분 없이 누구나 배움으로 신선을 이룰 수 있다는 신선가학론과 신선을 세 등급으로 구분하는 신선삼품설을 바탕으로 신선사상의 이론적 기틀을 다졌다. 이러한 갈홍의 신선사상은 중국 도교사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VI. 결 론

갈홍은 위진시대에 활동한 사상가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을 영원히 지키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자유와 불멸을 추구하는 갈홍의 신선사상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오늘날의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갈홍은 선진시기부터 내려오는 玄·道·一을 계승하여 신선사상에 부합

55) 葛洪, 『抱朴子內篇』, 「對俗」, “欲求仙者, 要當以忠孝和順仁信爲本, 若德行不修, 而但務方術, 皆不得長生也.”(신선의 윤리적 수행론은 유교의 충·효·인·신을 근본으로 한다. 갈홍의 신선사상은 유교의 윤리수행과 도교의 양생사상을 결합한 유도의 화합을 추구하였다.)

56) 葛洪, 『抱朴子內篇』, 「辨明」, “按仙經以爲諸得仙者, 皆其受命偶值神仙之氣, 自然所稟, 故胞胎之中, 已含信道之性, 及其有識, 則心好其事, 必遭明師而得其法. 不然, 則不信不求, 求亦不得也.”(신선가학론의 其受命偶值神仙之氣, 星宿設 등은 유교의 聖人生知說, 性命論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신선가학론은 숙명과 장생성선의 유도 화합적 사상으로 볼 수 있다.)

한 현·도·일로 변용·발전시켜 신선사상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자연의 시조이자 만물의 대종인 현, 만물의 근원이자 현실 사회의 총 근원을 아우르는 도, 이러한 현과 도는 우주만물의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역할로 만물을 생성하고 포용하며 규율 짓는 근본이 되고, 서로 짝을 이루어 정신과 육체를 지키는 영원한 삶의 원천인 玄道가 된다. 또한 현·도와 같은 개념의 일은 신령스러움의 의미를 지니며 보다 구체화되어 현도와 도를 신선사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갈홍에 의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주는 현도와 우주만물의 근본이자 법칙인 도를 守一·守眞一·守玄一의 存思氣功을 통하여 수련하고 체득하면, 인간은 영원불멸의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갈홍은 현·도·일을 신선사상의 근거로 제시하여 신선사상의 본체론을 펼쳤고, 나아가 형이상학의 현·도·일을 배움으로 터득하여 신선에 이른다는 선도의 실천 철학을 구체화하였다.

갈홍은 유향의 『열선전』과 혜강의 『양생론』 등 옛 문헌과 傳聞에 근거하여 신선이 존재함을 입증하였고, 나아가 신분, 귀천, 부귀와 상관없이 배움을 통하여 신선이 될 수 있다는 神仙可學論을 주장하였다. 신선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신념과 올바른 스승의 지도하에서 금단과 양생 등의 수련과 노력으로 신선을 이룰 수 있다는 갈홍의 신선가학론은 선진도가의 無爲自然의 사상을 계승하여 자연적으로 신선의 별을 타고 태어나야 한다는 숙명론과 짝을 이룬다. 이로써 갈홍의 신선가학론은 숙명론의 전제하에서만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신선의 별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란 구분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내가 신선의 별을 타고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과 희망을 내포하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신선의 운명으로 태어나 선도를 좋아하고 구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신선의 숙명론에 따르면, 신선이 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후천적인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선가학론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내가 바로 신선의 별의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확실한 신념과 더불어 신선이 되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노력이다. 그래서 갈홍은 '나의 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我命在我 不由天)'라는 도교철학의 명제를 계승하여 천명보다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갈홍의 도교철학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는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고, 인간은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졌었다는 것이다. 갈홍은 장생불사의 신선의 존재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도교의 전통과도 같은 秘儀의 규칙을 깨고 『포박자내편』을 저술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도가의 형이상학적 체계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장생불사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여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설파한 고독한 사상가였다.

〈參考 文獻〉

- 葛洪 撰, 楊明照 校箋, 『抱朴子外篇校箋』, 北京: 中華書局, 1991.
- 葛洪 撰, 王明 校釋, 『抱朴子內篇校釋』, 北京: 中華書局, 1988.
- 卿希泰 主編, 『中國道教史』,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6.
- 老子 著, 이상기 譯, 『老子道德經』, 서울: 전원문화사, 1997.
- 劉鋒·藏知非, 『中國道教發展史綱』, 臺北: 文律出版社, 1997.
- 劉安 著, 許匡一 譯註, 『淮南子全譯』, 中國: 貴州人民出版社, 1993.
- 揚雄 撰, 鄭萬耕 校釋, 『太玄校釋』, 北京: 師範大學出版社, 1989.
- 王明 編, 『太平經合校』, 北京: 中華書局, 1960.
- 王 明, 『道家與傳統文化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 『周易參同契』, 서울: 자유문고, 1997.
- 이용주, 『생명과 불사』, 서울: 이학사, 2009.
- 許抗生, 『三國兩晉玄佛道簡論』, 山東: 齊魯書社, 1991.
- 嵇康 撰, 戴明揚 校注, 『嵇康集校注』, 北京: 中華書局, 2015.
- 胡孚琛, 『魏晉神仙道教—抱朴子內篇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1989.
-
- 김태용, 「갈홍의 노자신선론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8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2014.
- 신진식, 「포박자내편의 양생사상 연구」, 『한국철학논집』 제43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4.
- 이용주, 「신선가학: 갈홍 신선론의 논리와 한계」, 『종교와 문화』 제6권,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0.
- 이진용, 「갈홍 포박자내편과 신선전의 신선사상 연구」, 『철학논총』 제45집, 새한철학회, 2006.
- 이진용, 「갈홍 포박자내편의 ‘玄’ ‘道’ ‘一’에 대한 이해」, 『도교문화연구』 제26집, 한국도교문화학회, 2007.
- 정우진, 「포박자 갈홍의 양생술 연구」, 『동양철학』 제40집, 한국동양철학회, 2013.

Abstract

The Quest on the context of Taoism in the thought of Gal Hong's Taoist hermit

Kim Chae-lin^{*}

Gal Hong, as the thinker during the Wei-Jin(魏晉) period, believed that all humans can be a Taoist hermit(神仙). Gal Hong changed and developed 'Progundity(玄)·Tao(道)·One(一)' corresponding with Taoist hermit, and he regarded 'Progundity(玄)·Tao(道)·One(一)' as the ground of the Taoist hermit-thought. In other words, Gal Hong expanded the ontology of Taoist hermit-thought by 'Progundity(玄)·Tao(道)·One(一)', and further he organized the practical philosophy of 'the Tao learning to be a Tao hermit(仙道)' that can be Tao hermit by learning and practicing 'Progundity(玄)·Tao(道)·One(一)' as the ground of universe.

Gal Hong's theory, which anyone can be a Taoist hermit, is that anyone can be a Taoist hermit by learning if he want to be a Taoist hermit regardless of rank, the noble or humble, gender. In the one hand, this theory succeeded to the inaction-naturalness(無爲自然) of Lao-zi in harmony with the fatalism which said a Taoist hermit being only one born by the star of a Taoist hermit. In the other hand, we can't identify whether who the Taoist hermit is or not, and thus it is itself included in a possibility that anyone can be the Taoist hermit. Therefore what is the most important is his will and effort to be the Taoist hermit. In conclusion, the historical meaning of Gal Hong's Taoism is that he argue anyone can be a Taoist hermit by his concrete theory and method seeking to freedom and immortality which is on the basis that human can overcome his mortality.

【Key words】 Gal Hong(葛洪), Taoist hermit(神仙), Progundity(玄), Tao(道), One(一)

투고일 : 5월 7일, 심사완료일 : 6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18일

^{*} Ph.D.program, Kongju National University / k72clin@naver.com

